

3분기 해외사업 리스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커질 듯

- 공종 · 권역 · 규모별 해외건설사업 리스크지수 추이 분석을 중심으로 -

유위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wsyoo@cerik.re.kr

김우영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beladomo@cerik.re.kr

2015년 상반기 해외사업 수주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2%¹⁾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잠재 손실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 상황과 지속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의 증가는 국내 건설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위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수익성 하락 예방 대책과 함께 손실에 노출된 잠재 리스크 규모의 증가를 사전에 경고(alarm)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수주 실적은 기업의 수주 역량과 진

출국의 외부 환경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계획된 수익성 확보 여부는 프로젝트 관리 및 리스크 관리의 성과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본고에서는 1998년부터 2015년 1분기까지의 실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올 3분기 해외건설사업의 잠재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추정된 해외건설사업 리스크지수(IPRI : International Project Risk Index)는 올 하반기 기업의 경영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산업 차원·공종별·권역별·규모별 IPR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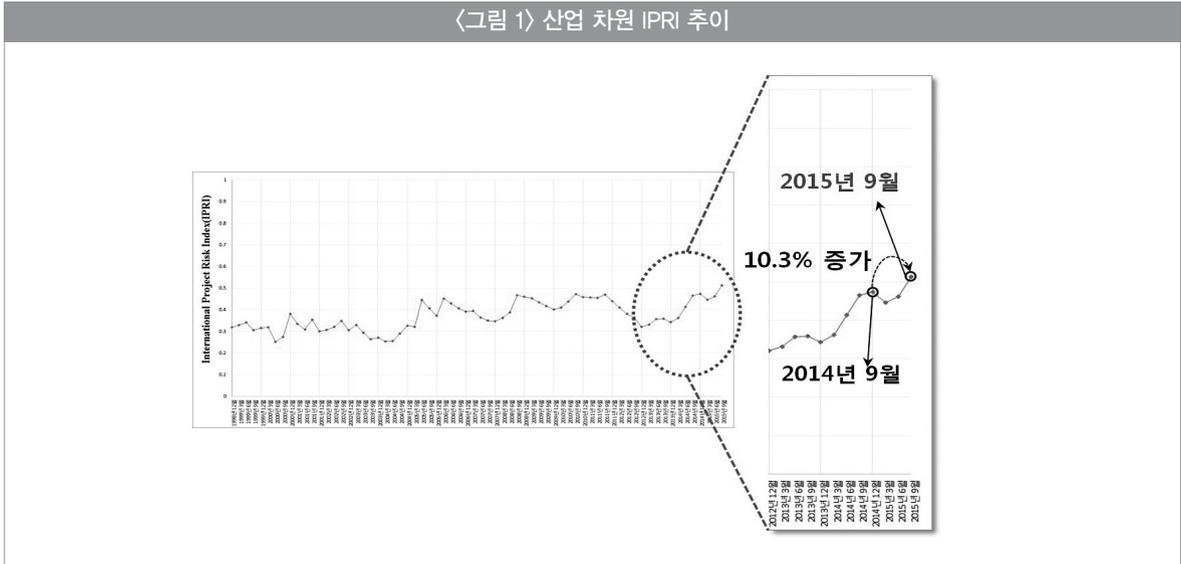
는 정부의 금융 및 정책 지원 대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차원 IPR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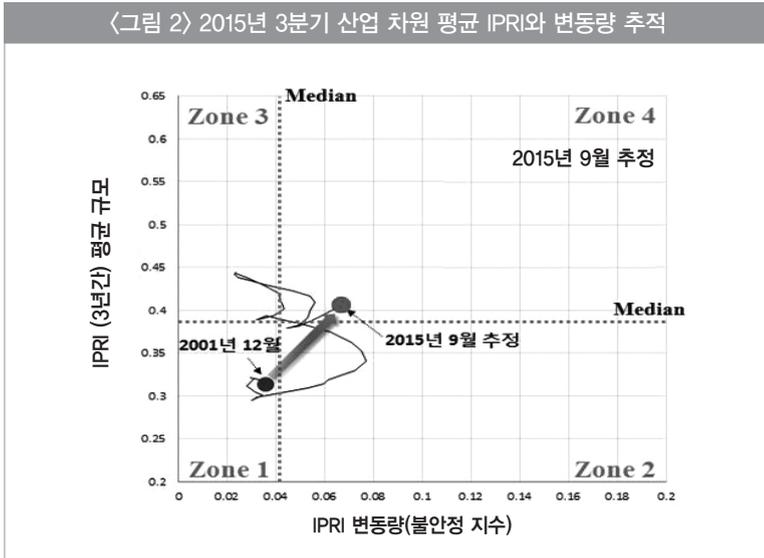
2015년 3분기 산업 차원의 IPRI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그림 1〉 참조). 이러한 증가세는 사업의 대형화와 건수의 증가가 IPRI 상승을 유발하고, 리스크 대응 및 통제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2〉와 같이 올

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협회(www.kor.icak.or.kr).

〈그림 1〉 산업 차원 IPRI 추이



〈그림 2〉 2015년 3분기 산업 차원 평균 IPRI와 변동량 추적



3분기 IPRI 평균 크기와 변동량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중 관리 대상 사업을 신속히 선별하여 실효적인 대응과 잠재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대책 수립이 구축되어야 한다. 평균 IPRI 규모는

잠재 리스크의 크기를 설명하면서 프로젝트관리 역량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IPRI 변동량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리스크 대응 및 통제 체계의 불안정 지수 (unstability index)를 의미한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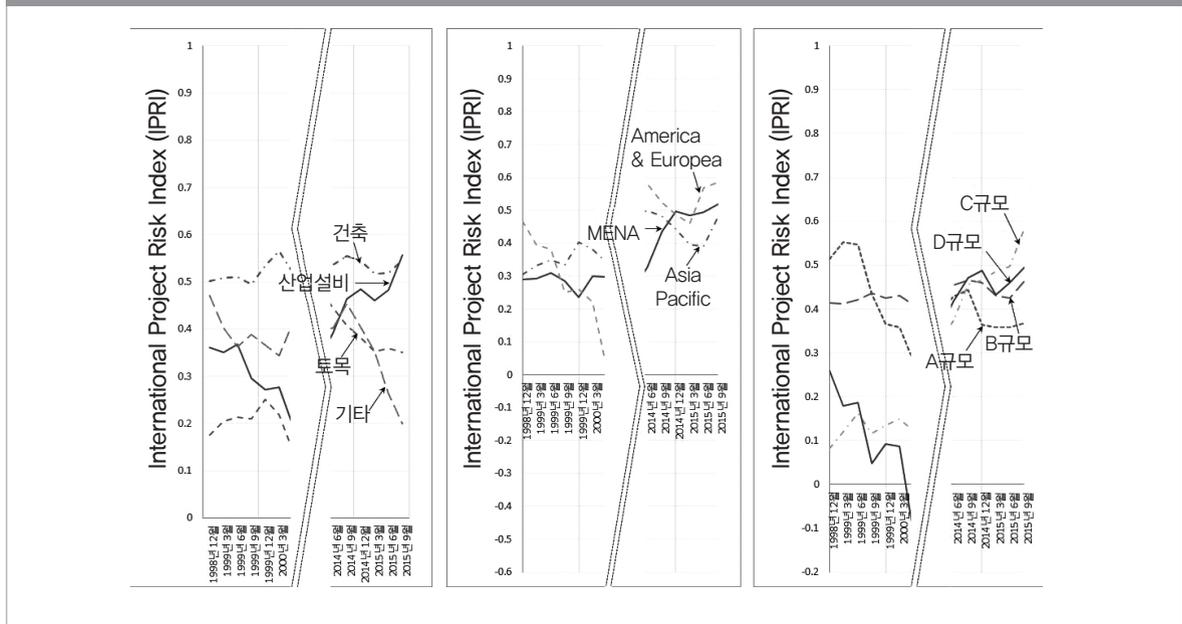
림 2〉에서 Zone 1은 IPRI의 크기와 변동량이 감소하는 영역으로 국내 건설기업들이 향후 추진해야 하는 영역이고, Zone 4는 기업과 산업이 점진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영역이다.

과거 완료된 사업에 비해 최근 수주하여 수행하는 사업들의 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5배 이상 커지고 있지만 유가 하락 및 정체로 일부 중동 국가에서의 발주 물량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목표 사업 공기(project duration)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사업에 대한 소화 물량 부담도 IPRI 증가의 간접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3분기 공종 · 권역 · 규모별 평균 IPRI 크기와 변동량 추적

산업 차원의 IPRI가 증가하는 원인

〈그림 3〉 공중·권역·규모별 IPRI 추이



을 살펴보면, 산업설비 부문, MENA 권역, 5,000억원 이상 사업 영역의 IPRI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 〈그림 4〉를 살펴보면 2015년 3분기에는 건축, 산업설비 사업들의 잠재 리스크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권역별로 분석해보면, 아시아·태평양, 중동 및 아프리카, 미주 및 유럽에서 잠재 리스크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이들 권역에서 산업설비 사업의 IPRI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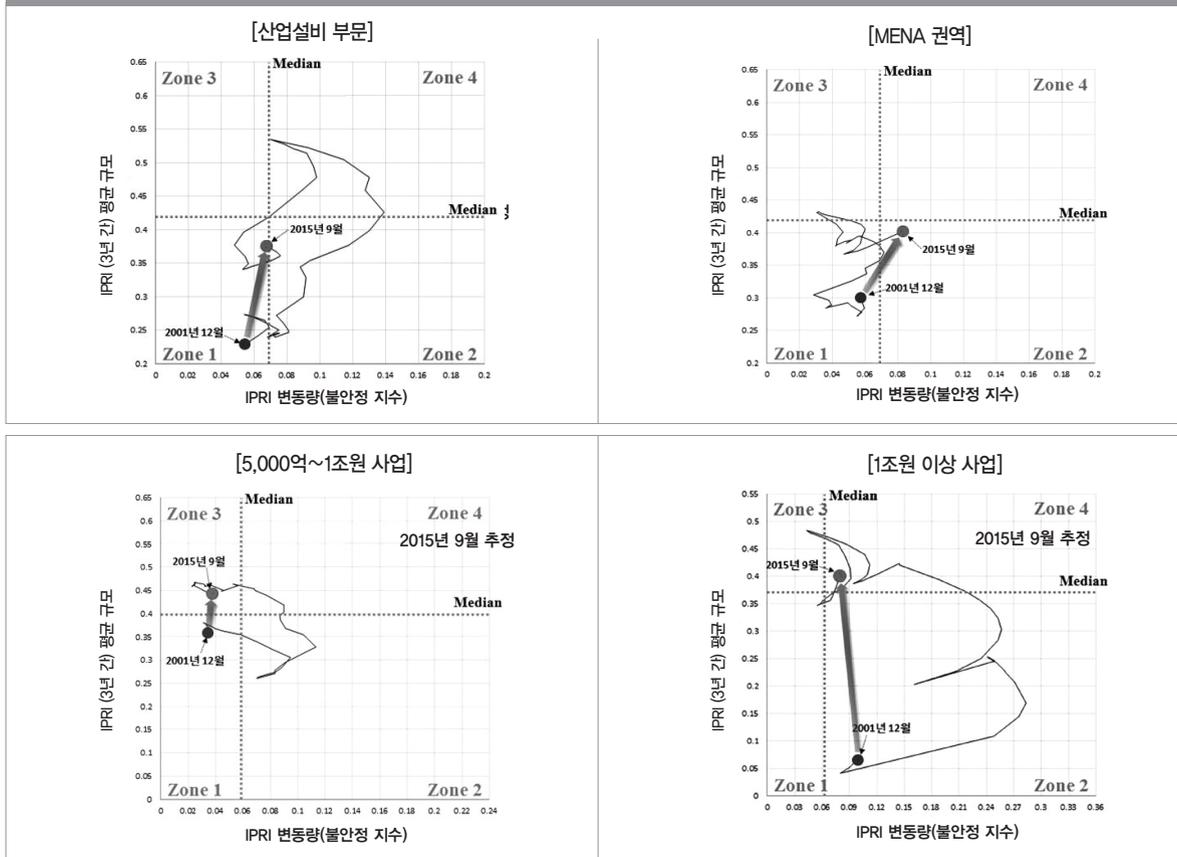
2007년 이후 수주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국내 건설기업들은 5,000억~1조원(C규모) 사업, 1조원 이상(D규모) 사업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및 통제 체계에 대한 준비가 충분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MENA 권역에 1조원 이상의 산업설비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평균 IPRI 크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대응 및 통제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2013년, 2014년과 같은 손실 경험을 예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손실에 노출될 개연성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의 선진화와 고도화가 필요하다.

최근 소개된 IPRI는 단위 사업의 진행률 실적을 기반으로 잠재 리스크 규모를 계량화한 지수로 기업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도가 클 것이다. IPRI 값이 감소하는 것은 표준 계획에 따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IPRI 값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외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PRI 변동량이 크면 리스크 대응 및 통제 역량의 안정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이고, IPRI 변동량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1년에 비해 2015년 평균 IPRI 규모와 변동량은 모두 다소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사전적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림 4> 산업설비, MENA, 5,000억원 이상 사업의 평균 IPRI 크기 및 변동량 추적



시사점

2014년 IHS Global Insight의 세계 건설시장 보고서의 의하면, 해외 시장 규모는 향후 2019년까지 약 14.7조 달러까지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현 시점에서 부터라도 적극적인 사업 수행 역량의 개선 노력과 투자에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잠재 리스크를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전체

IPRI 크기와 변동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 중심으로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 차원의 IPRI 추적과 분석을 공종·권역·규모·기업별로 적용할 경우 국내 건설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단위 사업의 잠재 리스크 규모를 추정할 수 있고, IPRI 크기에 영향이 큰 사업들 중심으로 중점 관리 활동의 적시성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해외사업 리

스크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어 향후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대한 높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하는 IPRI 크기 및 추이 분석은 수주 확대, 수익성 제고, 손실의 제로화 전략을 동시에 충족하면서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기능으로 활용될 것이다. CERIK